광주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최종 확정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평가위 심의 통과

미래차·에너지 등 AI전환 가속화 기대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광주 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를 승인했다.

AI 2단계 사업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이다. 이번 결정으로 2단계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 6천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5년간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5년 간 4천300억원 규모로 국가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광주시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된 지난 22일 전일빌딩245 외벽에 AI 예타 면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광주시 제공〉

2단계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AX,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 문제에 AI를 입히는 데 중점을 둔다.

광주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인 5극3특 체제 구현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RE100 산단 조성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 AI 전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AI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타워인 'AI 이노스페이스'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특히 AI 중심도시로서 모든 시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모두의 AI'의 선도적 구현을 위해 광주형 모두의 AI 개발을 추진하고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과제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대형 과제 중심으로 기획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AI 2단계 사업을 통해 AI 융복합기업 1천개 사 집적을 목표로 한다.

또 3천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랩'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천879종을 기업에 제공해 실증 중심의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으로 생산 유발 9천831억원, 부가가치 유발 4천942억원, 고용 유발 6천281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여기에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향후 '국가 AI 집적단지' 지정과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연구 개발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1단계 사업이 인프라와 인재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2단계는 시민이 체감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통령의 약속처럼 광주를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한일,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이시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한미일 북핵 위협 대응…제재 국제 협력"

"북러 군사협력 대처…납치문제 해결 노력"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방일 뒤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저출산·수도권 집중 문제·재난 안전 등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상한 확대 등 인적교류 강화 등의 협력 방안을 발표문에 명시했다.

관심을 끄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발표문에 담았다. /연합뉴스

광주평화열차 내달 19일 운행

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행하는 광주평화열차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싣고 오는 9월19일 효천역을 출발해 파주 DMZ로 향한다.

광주시는 평화열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열차에는 총 300명의 시민이 탑승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25일부터 광주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 당 11만원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190만달러

7월말 기준 전년 동기比 7.3% 증가

고금리·관세에도 김 등 수산물 주도

전남도는 24일 "고금리·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19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9천174만달러로 1년 전 대비 13.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은 8천68만달러, 일본은 1억2천989만달러로 각각 10.9%, 6.6%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이 급증한 것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품 선호도 상승, 김 등 수산물 수요 확대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김을 포함한 수산물 수출액이 3억3천177만달러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호실적을 주도했다. 이어 농산가공품 8천126만달러(16.2%), 분유 등 축임산물 4천802만달러(9.6%), 배 등 신선농산물 4천84만달러(8.1%)를 각각 기록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국제 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하반기에도 국가별 맞춤형 판촉과 수출 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道-전국지역아동센터協, 아동복지 발전 논의

도정 간담회서 정책 협력 방안 모색

전남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도정 간담회를 열어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아동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를 도입해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등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감정가이하 급매물]
- 북구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정가 6억1,600
급매가4억1,000(시세50% 급급매합니다)

[대출감정가 급매]
- 대인광장로타리/버스승강장앞
상업지 18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입니다(만남의광장,맛집,전시장 등등)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CMYK